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성과공유회' 개최

작품전시마당·문화예술 체험마당·공연발표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 운영
수강생이 만든 캘리그래피 등 공예 및 미술작품 광주시민 누구나 관람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이 2022년 한 해 동안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결과물을 전시 및 발표하는 '2022년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28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 따르면 성과공유회는 오는 12월3~10일 8일 동안 개최한다. ▲작품 전시마당 ▲문화예술 체험마당 ▲공연 발표마당 총 3개의 분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작품 전시마당은 12월3~10일 회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수강생들이 만든 캘리그래피, 서예, 다양한 공예 및 미술작품을 광주

시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문화예술 체험마당은 12월10일 13~16시 회관 공연장 로비에서 운영한다. 아이클레이를 활용한 오르골 만들기, 토피어리 장식 등 회관 강좌와 연계된 5개의 체험존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공연 발표마당은 12월10일 16~17시 회관 공연장에서 개최된다. 댄스와 마술, 우쿨렐레 등 강사와 수강생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공연을 마련했다. 또 특별공연인 전자바이올린 연주를 통해 연말을 맞아 관객들과 함께 하는 풍성한 공연도 함께 준비했다.

더불어 학생교육문화회관은 공연을 마치고 관람객 약 30여 명에게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현경식 관장은 "올 한 해 동안의 학습 성과를 전시 및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취감과 지속적인 학습 동기를 얻었으면 한다"며 "더 나아가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성과공유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누리집(<http://lib.gen.go.kr/gecs>)을 참조하거나 운영과로 문의(☎062-380-8853-5)하면 된다.



김재환기자

순천교육청 Wee센터, '엄마랑 소꿉놀이' 운영



순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최근 이틀간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과 엄마 20가정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관계향상을 위한 '엄마랑 소꿉놀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엄마랑 소꿉놀이'는 5회째 운영중인 엄마와

학생이 함께하는 푸드테라피 프로그램으로 요리라는 매체를 통해 부모와 학생이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함으로써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이다.
이번 해에는 매년 진행했던 푸드테라피와 더불어 심리극 프로그램이 추가로 진행됐다. 부모와 자녀가 신체적, 정서적 접촉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를 체험하고, 매체를 활용해 가족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여 그 안에서 서로가 바라보는 가족의 모습 차이와 같음을 이해하는 소통과 공감의 시간으로 꾸며졌다.
순천=김승호기자

진도공공도서관, '산타와 함께하는 눈꽃 버블쇼' 운영



진도공공도서관이 지난 26일 토요일 진도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지역주민 130여 명을 대상으로 '산타와 함께하는 눈꽃 버블쇼'를 성공적

2022년 지역주민 문화예술 마지막 공연 성황리 마무리

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지역 문화예술공연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새롭고 특별한 공연으로 기존 30명 관객으로 시작했던 공연이 130명도 빠르게 마감될 정도로 지역주민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공연은 열정과 재능이 넘치는 청년 예술가로 청춘 마이크에 선정되어 다양한 방송 매체에 출연한 '버블타이거'가 수준 높은 수제 비눗방울 공연을 펼쳤다. 아이들은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버블을 연신 손으로 잡아보며 즐거워했고,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가 흥겹게 공연을 즐겼다.

특히 관객이 직접 대형 비눗방울에 들어가 보는 신기한 체험과, 미니어처 자전거 타기, 조금 일찍 찾아온 산타의 요술 풍선 선물, 큰 공연장을 가득 채운 화려한 눈꽃 버블에 관객 모두 환호했다.
한 관람객은 "눈꽃 버블쇼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객도 "코로나19로 지쳤던 마음에 큰 힐링이 됐고, 가족들과 함께 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올해 마지막 공연이라니 아쉽다"며 소감을 전했다.
진도=조상용기자

보성교육청, 맘-품지원단 체험프로그램

보성교육지원청은 지난 26일 보성군 관내 '상상농원'에서 맘-품지원단 멘토-멘티, Wee센터 전문인력 등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맘-품지원단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맘-품지원단은 돌봄이 필요한 배려대상 학생들에게 엄마의 품처럼 따뜻한 지원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학교폭력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멘토링을 전개하는 사업이다.
이번 체험프로그램은 보성관내 지역 체험프로그램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학생들의 정서회복을 도모하고자 야외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체험에 참여한 5학년 박00 학생은 "주말에 멘토 선생님과 함께 밖으로 나와 케이크도 만들고 다른 학교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 나눌 수 있어 너무 좋았다며 멘토 선생님과도 더 가깝게 친해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보성=김덕순기자

담양교육청, 담양 마을교육공동체와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학생·교직원·학부모 지역민 등 400여명 참석

담양교육지원청은 지난 26일 '2022. 청죽골 마을교육공동체·다문화 어울림 한마당'을 학생·교직원·학부모 지역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강고등학교 잔디운동장에서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담양에서 운영되고 있는 샘물 마을학교 외 9곳의 마을학교와 학부모연합회, 진로체험처, 다문화 가족 등 담양 마을교육공동체가 1년 동안 운영한 결과물 전시와 20개의 다양한 체험부스로 운영되어, 코로나로 외

부활동이 적었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모처럼 신나게 뛰고 노래 부르며 과란 잔디 위에서 행복할 시간을 보냈다.
드론 조종체험, 우리 농산물 팝콘체험, 친환경 에코백 만들기 등 담양마을학교 체험과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의 전통음식체험, 전라남도자연환경연수원의 환경교육체험, 담양소방서의 안전체험 등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가 제공되었으며, 특히 학부모와 진로체험처 체험부스에서는 깍두기 담기, 전통



쌀 엮 만들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이해 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더 의미가 있었다.
담양=박종영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